

어느덧 5월

덕분에 TIC1 첫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민자 교회의 1세대와 2세대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피터차 교수님의 배려로 12개 교회 중에서 제일 중앙에 테이블을 받았습니다. 3년전 처음 차교수님의 사무실을 두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2세 지도자들과 금번처럼 심도있는 토의와 교제를 나눈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서로를 알아가고 미래의 헤브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금요일에 배때 정리하여 나눌게요.

어느덧 5월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경통독 그리고 TIC1 수련회까지 딱찬 4월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KAPC 시카고 총회가 무거운 짐입니다. 송용걸목사님 이후로 20년 만에 열리는 탕인지 등록인원이 300명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특히 11일 수요일에는 선교의 밤이 헤브론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두명의 총회 파송 선교사가 있고, 강사로는 감비아 이재환 선교사가 감당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예찬팀과 성가대, 그리고 식사봉사가 있으니 따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금주부터 한 주간 룯기를, 그 이후에는 사무엘상을 설교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룯기 시리즈를, 2019년에 다윗 시리즈를 나눈 적이 있으니 어느 정도 기본 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년성경통독을 통해 큰 그림을 잡으셨으니 이제 각론을 통해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을 걸어오실 때,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해석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예수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5. 1. 임철성 목사 올림